(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8 (2026. 4.), 54-83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6.4.58.54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새한글성경』 정중 어법에 대한 소고
— 왕과 예언자의 대화를 중심으로 —

김성언*

1. 들어가는 말

정중 어법이나 정중 전략은 언어와 문화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구현된다. 구약성서의 언어인 성서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같은 존대법(높임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히브리어에도 호칭어, 대명사, 자기 낮추기 표현 등의 사회적 직시(social deixis)를 통해 상대방을 높이거나 자신을 낮추는 정중 어법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나의 주'라고 부르거나 자신을 낮추어 '당신의 종'과 같은 공손 표현이 대표적이다.

왕과 신하(또는 일반 백성) 사이의 대화는 서로 간의 위계질서가 분명하기 때문에 정중 어법[1] 이론을 적용해서 해석하고자 할 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이해된다. 신하는 왕 앞에서 말할 때 왕의 체면을 보호하면서

* Tel Aviv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조교수. sungon.kim72@puts.ac.kr.

1) 화용론적 개념인 정중 어법 또는 정중 전략(politeness strategy)과 일부 언어체계에서 작동하는 존대법(높임법, honorifics)은 구별된다. 본 연구는 정중(politeness)을 상호작용에서 체면(face)과 관계(relationship)를 조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전략 범주로 이해하고, 공손(deference)이나 존대법/높임법(honorifics)을 그 하위에서 작동하는 대표적인 전략적·형식적 실현 방식으로 다룬다. 이는 개념의 존재론적 종속을 의미하기보다, 분석상의 위계 설정이다. 다시 말해 공손(deference)과 존대법(honorifics)을 정중(politeness)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한 것은 분석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 두 개념들이 정중 담화 밖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중 담화'란 체면 보호와 관계 조정을 목표로 한 담화 효과를 가리킨다. 한편, 조지윤은 'politeness strategy'를 '공손 전략'으로 번역한다.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28, 각주 4번.

궁정 질서 안에서 허용 가능한 발화를 수행하는 정중 전략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왕과 예언자의 대화에서도 예언자가 왕에게 간청하거나 요청하는 장면이라면 왕과 신하 사이의 일반적인 언어 전략들이 사용된다. 하지만 예언자가 왕을 책망하거나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진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할 뿐, 왕의 체면 손상을 피하려는 담화적 노력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예언자가 왕을 책망하거나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에서는, 청자의 체면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무례한 언어 전략이 사용된다.[2] 그렇다면 이러한 정중·무례 담화의 화용론적 차이를 오늘날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한글 성경 번역자가 존대법을 일관된 공손함의 표시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담화 유형과 목적에 따라 존대 수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안한다. 즉, 왕에게 요청하는 담화에서는 존대 표현을 강화하고, 왕을 책망하거나 심판하는 담화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방식이 원문의 담화 기능을 더 충실히 재현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최근 출간된 『새한글』은 이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새한글』은 현재 개신교회에서 공인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에 비해 국어학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시도했다.[3]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존대법(높임법)의 전면적 재구성이다.[4] 『개역개정』이 권위를 중요시한 번역이었다고 본다면 『새한글』은 일반 대중을 존중하는 번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개역개정』은 대화체의 높임법을 주로 하십시오체와 하라체로 단순화한 반면, 『새한글』은 인물 관계와 장면의 성격에 따라 해요체·해체부터 하십시오체·하오체·하게체·해라체까지 다양한 높임법을 분화하여 적용한다. 『개역개정』이 전통적 교회 문체와 권위적 인상을 유지했다면, 『새한글』은 다음 세대의 이해 가능성과 현대 한국어 사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높임법 운용을 재구성했다.

---

2) 최근에 조은혜가 주장하듯이 왕과 예언자의 대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중 이론과 무례 이론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다. 무례 전략(impolite strategies)을 성서 히브리어와 성서 번역 분야에 적용한 최초의 한국 성서학자는 조은혜다. 그녀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왕과 예언자의 대화의 양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무례 전략(자신의 용어로 '불손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무례 전략을 성서 히브리어 연구에 도입한 해외의 학자들도 극히 드물다. 조은혜, "구약성서의 공손어법과 한국어 번역 연구: 왕과 예언자의 대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25).

3) 민현식은 '어휘', '문장', '담화', '표기'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그 변화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353-384.

4) 학자들은 높임법과 비슷한 개념으로 대우법(성기철), 존대법(서정수), 존비법(고영근), 경어법 등을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높임법으로 부르는 학자들이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높임법과 존대법을 동의어로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왕과 예언자의 대화 장면을 중심으로 『새한글』이 존대법과 담화 전략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살펴보고, 주요 한국어 번역 성경들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비교 대상으로는 『개역개정』, 『새번역』을 선택했다. 한글 성경 번역 연구에서 자주 논의되는 『공동개정』과 『성경』(2005)을 제외한 이유는 지면상의 제약성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3가지 성경에 존대법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특별히 『새한글』에 적용된 존대법의 특징을 정리하고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성서 원문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하면서 오늘날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존대법을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담화 유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다윗–나단 담화(왕상 1장, 삼하 12장)와 사무엘–사울 담화(삼상 15장)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열왕기상 1장은 나단이 다윗에게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요청·보고하는 정중 담화이며, 사무엘하 12장은 동일한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무례 담화이다. 사무엘상 15장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는 무례 담화에 해당한다. 이 세 본문은 동일한 예언자–왕 관계 안에서 담화 목적에 따라 정중 전략과 무례 전략이 교체되거나 대비되는 양상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사례들은 담화 유형에 따라 존대 전략이 달리 선택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을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본문이다. 특히 책망·심판 담화에서 원문의 무례함과 긴장감을 한국어 번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려야 하는지가 본 연구의 핵심 물음이다. 이를 통해 성서 담화의 신학적·화용론적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2. 한국어 존대법과 성경 번역

본 장에서는 히브리어 구약성서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요소, 즉 2인칭 대명사의 처리와 화계(종결어미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물론 성경 번역에서 분석해야 할 요소는 다양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이 두 가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2.1. 2인칭 대명사 vs 직함 · 관계 명사

전무용은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 2인칭 대명사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직함·관계어와 같은 명사로 바꾸거나 아예 생략하는 방식이 한국어 화용 현실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한다.[5] 한국어에는 손윗사람을 직접 부르는 적절한 2인칭 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대면 발화 상황에서는 주어를 생략하거나 "형님", "아우님", "시종장", "어른들"과 같은 명사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새번역』 성경이 이러한 명사화를 통해 등장인물 사이의 위계와 존중 관계를 한국어 규범에 맞게 반영한 점을 "한국어의 현실을 배려한 번역"으로 평가한다. 또한 주기도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담화에서도 2인칭 대명사를 생략하거나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명사로 전환하는 번역이 한국어 어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6] 이와 같이 전무용의 기본 논의는 상대의 체면을 보호하고 존중을 표현하는 존대(정중) 담화 상황을 전제로, 한국어 화용 규범에 맞는 2인칭 표현 방식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출애굽기 32:21-22에 나타난 모세–아론 담화는 이러한 존대 담화의 전형과는 다른 사례로 제시된다. 『개역개정』에서는 모세가 형 아론에게 "너"라고 말하고, 아론이 모세에게 "당신"이라고 응답하는데, 전무용에 따르면 이는 한국어 관습과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용법이다. 특히 "민족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형에게 '너'라 하는 것은 한국어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그의 지적은, 이 담화가 책망과 책임 추궁이 중심이 되는 긴장된 발화 상황, 곧 체면 위협이 두드러지는 담화임을 전제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무용은 『새번역』이 "형님–아우님"과 같은 명사 호칭을 사용한 번역을 한국어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조정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담화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특별한 권위적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신학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수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7] 그는 이 장면을 존대 담화의 일반적 모델이 아니라 신학적 예외가 허용되는 특수한 경우로 규정한다.

전무용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듯이, 『새번역』의 2인칭 대명사를 명사 호칭으로 대체하는 전략은 많은 장면에서 자연스럽고 적절하다. 하지만 전무용이 신학적으로 특수한 맥락을 언급하며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번역자는 왕과 예언자의 대화와 같이 책망과 심판이 중심이 되는 무례 담화에서는 다른 번역 전략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담화에서는 명사 호칭이 적절하지만 책망과 심판이 중심이 되는 신학적 예외 상황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직역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담화의 본질을 더 정확히

5)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97-122.
6) Ibid., 111-113.
7) Ibid., 112.

구현할 수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새한글』은 『새번역』의 명사 호칭 전략을 더 넓은 범위로 확대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존대 담화뿐 아니라 책망과 심판이 중심이 되는 담화에서도 명사 호칭 전략이 일관되게 사용되며, 이는 담화의 대립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성서 히브리어의 2인칭 대명사를 어떻게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안은 조은혜에 의해 수립되었다.[8] 조은혜는 헬름브레히트(J. Helmbrecht)의 유형론을 바탕으로, 성서 히브리어는 공손성 구분이 문법화되지 않은 언어 유형에 속하는 반면, 한국어는 존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2인칭 대명사를 회피하고 명사 호칭을 사용하는 언어 유형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성서 히브리어에서 2인칭 대명사 אַתָּה가 단순히 무례하거나 비공손한 표현이 아니라, 긴급성, 개인적 관계 환기, 혹은 담화 목적의 직접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히브리어의 2인칭 사용을 기계적으로 한국어의 존대 규범에 맞추어 명사 호칭으로 치환하는 것은 원문의 담화 기능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조은혜는 번역자가 화자–청자 관계, 담화 목적, 발화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중 담화에서는 명사 호칭과 존대법을 활용하되, 책망·심판·규탄과 같은 담화에서는 직접적인 2인칭 지칭이나 존대법의 제한을 통해 원문의 대면성과 권위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은 2인칭 대명사를 일괄적으로 회피하거나 존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담화 유형에 따라 번역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는 기능 중심적 원칙을 제시한다.

조은혜는 구체적으로 2인칭 대명사를 “임금님”, “왕”과 같은 명사 호칭어로 전환하는 이유를 공손성·불손성 판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성서를 번역할 때에는 원문의 2인칭 대명사가 지닌 공손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번역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다. (1) 한국어 2인칭 대명사를 그대로 사용하기, (2) 명사 호칭어로 전환하기, (3) 아예 생략하기. 이 가운데 특히 불손성(impoliteness)이 두드러지는 담화 맥락, 곧 예언자가 왕의 죄를 지적하거나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유지하는 것이 원문의 담화 기능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본다. 반대로, 정중함과 체면 보호가 핵심이 되는 궁정 담화나 요청 담화에서는 명사 호칭어와 존대 표현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조은혜는 2인칭 대명사 번역을 단순한 존대법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공손성·불손성의 정도와 담화 기능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재구성한다.

8) 조은혜, “구약성서의 공손어법과 한국어 번역 연구”, 109-110, 182-183.

2.2. 한국어 성경의 화계 분석

박덕유는 한국어의 화계를 상대높임법에 나타나는 대우 등급(scale of politeness)으로 규정하며, 이는 주로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된다고 설명한다.[9] 그는 화계 분석의 기본 원칙으로 문법적 규칙을 따르되, 반드시 장면과 상황에 따른 담화론적·화용론적 화계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화계 설정에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나이, 지위, 성별, 공적·사적 관계), 대화의 장면과 상황, 화자의 심리적 태도,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힌다.[10]

또한 박덕유는 격식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획일적인 화계 사용으로 일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11] 그는 특히 공회에서의 신문, 법정에서의 재판, 고문과 조롱, 욕설과 폭력이 동반되는 장면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존대 화계와 다른 방식의 화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12] 이러한 논의를 통해 박덕유는 화계가 단순한 문법 형식이 아니라, 담화 상황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언어적 선택임을 강조한다.

조은혜가 화계 변동을 한국어 성서 번역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제안한 것은 큰 공헌이다.[13] 조은혜는 한국어 높임법 연구(성기철, 이정복 등)를 인용하며, 실제 담화에서는 상이한 화계가 혼용·병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화계 변동은 청자에 대한 대우 판단이 순간적으로 달라지거나, 화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조정하려 할 때 발생한다. 다시 말해, 화계는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화자의 대우 의도와 담화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언어적 자원이다.

조은혜에 따르면, 화계 변동은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언어 자원이다. 왕-예언자 대화에서 심판 선언과 같은 권력 이동은 화계 변동으로 표지될 수 있다.[14] 이 원리는 사무엘하 12장 나단–다윗 담화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된다. 나단은 먼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우화를 제시하고(1-6절), 다윗이 판결을 내리게 한 뒤, 다윗을 그 부자라고 지목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구조적 반전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나단은 소송 제기자에서 판결자로, 다윗은 판결자에서 피고인으로 위상이 전

9)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 (2014), 84-85.
10) Ibid., 101.
11) Ibid., 101-102.
12) Ibid., 102.
13) 조은혜, “구약성서의 공손어법과 한국어 번역 연구”, 119-121.
14) Ibid., 120.

환”된다고 분석한다.[15] 이러한 역할 변화는 한국어 번역에서도 화계 변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개역개정』이 1-4절에서는 하소서체를 사용하다가 7절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는 해라체와 직접적인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점을 조은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16] 요컨대 조은혜 연구의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왕-예언자 담화와 같이 담화 상황 속에서 힘의 추이에 변화가 발생하는 본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화계 변동 개념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데 있다.

2.3. 『새한글성경』의 존대법 화계의 다양성과 역동성

민현식은 대한성서공회의 『새한글』 번역 사업에 국어 책임자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과 2024년에 이 번역본의 국어학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17] 『새한글』의 정중 어법 변화는 이전 번역본들에서 높임법이 문체에 내장된 고정적 형식이었다면, 이를 상황과 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담화 전략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이는 다음 세대의 실제 언어 사용 방식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의 다양한 담화 상황과 장르적 특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한다.

민현식에 따르면, 중세 국어에서는 높임법 화계는 3등분 체계였는데 현대 국어의 경우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6등분 체계로 분화했다고 설명한다. 세부적으로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의 격식체와 ‘해요체, 해체’라는 비격식체로 구별한다.[18]

그는 먼저 서사문의 경우를 다룬다. 이야기를 기술해 주는 서사문에서 『새한글』은 일관되게 해라체를 선택했는데 이는 『새번역』과 동일하다. 반면에, 『개역개정』은 고전체나 옛말체로 불리는 ‘-더라, 니라’로 끝나는 종결형을 사용했는데, 옛말 문법에서 이를 ‘하라체’로 부른다.[19]

대화문은 서사문보다 더 다양한 화계가 사용된다. 『새한글』은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에 이르는 현대 국어의 여러 화계를 동시에 활용한다.[20] 이것은 서사문과 대화문 전반에서 주로 ‘하라체’(–니

15) Ibid., 120-121.
16) Ibid.
17)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370-376; 민현식, “『새한글성경』 간추린 국어 해설”, 대한성서공회 편, 『새한글성경 간추린 번역 해설집』 (2025), 189-222,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ehan&wr_id=31 (2026.01.31.).
18) 민현식, “『새한글성경』 간추린 국어 해설”, 203.
19) Ibid., 204.

라, –더라, –도다)를 기본으로 하고, 기도나 공식 청원 장면에서는 '하소서체'(–나이다, –리이다)를 사용하는 이원적 화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성경 66권 전체가 비교적 단조로운 높임법 구조를 유지한 『개역개정』과 대조를 이룬다. 한편 현대 국어의 화계는 『새번역』에서 시작되었는데 『새번역』은 하십시오체와 해라체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장면에서 해요체를 도입했다.

『새한글』의 역동적인 존대법 화계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나아만의 담화를 들 수 있다. 나아만은 처음 엘리사의 지시를 받을 때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소"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하오체를 사용하여 자신이 상대보다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다는 전제를 유지한 채, 아래 사람을 일정 정도 예우해 주는 방식의 담화 태도를 드러낸다. 즉, 형식적으로는 공손함을 유지하지만, 화자의 우위와 판단권이 여전히 강조되는 위계적 말투이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치유를 경험한 이후, 나아만은 "이제 선생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새한글』은 이를 하십시오체라는 최고 등급의 공식적 존대 화계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화계의 상향 이동은 나아만이 엘리사를 신적 권위를 대행하는 예언자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담화적으로 드러내며, 존대법의 변화가 예절상의 조정을 넘어 신학적 인식 전환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엘리사의 담화는 『새한글』에서 그 담화적 성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처음 지시할 때 사용한 "가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세요"라는 표현은 형식상 하오체에 해당하며, 이는 상대를 일정 정도 존중하되 화자의 우위와 권위를 전제하는 위계적 화계이다. 이는 예언자가 신적 권위를 대행하여 명령을 전달하는 담화 상황과 잘 부합한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한다. 엘리사가 "편히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새한글』은 이를 하십시오체로 번역하여 존대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이로 인해 엘리사의 담화는 오히려 나아만을 더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며, 예언자적 권위가 강화되기보다는 완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즉, 엘리사의 담화에서는 존대법 화계가 상황의 담화적 요구와 달리 역행적으로 조정된 셈이다. 엘리사의 발화를 일관되게 하오체로 유지하는 방식이, 상대를 예우하되 신적 권위를 수행하는 예언자의 위계적 위치를 드러내는 데 더 적합했을 것으로 보인다.

20) Ibid., 205.

3. 정중(Politeness)과 무례(Impoliteness)[21]

왕과 예언자의 담화는 정중 전략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특히 책망과 심판 장면에서는 무례 전략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일반 언어학의 정중 이론과 무례 이론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성서 히브리어에 반영된 정중 전략과 무례 전략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학의 정중 이론은 지면상의 이유로 브라운과 레빈슨(P. Brown and S. C. Levinson)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3.1. 정중 이론

화용론 및 사회언어학 영역에서 정중 이론은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이론적 토대가 언어학 내부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학 분야의 통찰로부터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뒤르하임(E. Durkheim)과 고프만(E. Goffman)의 사회학적 통찰이 정중 이론의 토대를 형성했다. 뒤르하임은 사회적 의례(ritual)와 집합적 상징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자아가 일종의 '신성한 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고프만은 뒤르하임의 의례 이론을 일상적 대면 상호작용 차원으로 확장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보호받아야 할 '체면(face)'을 지니며, 상호작용 참여자들은 서로의 면자를 존중하는 의례적 질서를 수행한다.

브라운과 레빈슨은 고프만의 체면(face) 개념을 발전시켜, 모든 화자가 두 가지 기본적인 체면 욕구를 지닌다고 보았다.[22] 하나는 타인의 승인과 호의적 수용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자기 이미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이며, 다른 하나는 타인의 간섭이나 부담(imposition)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이다. 요청이나 명령과 같은 발화 행위는 이러한 체면 욕구를 위협할 수 있는데, 이를 체면 위협 행위(face-threatening act, FTA)라 부른다. FTA의 강도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거리(D), 청자가 화자에 대해 지니는 상대적 권력(P), 그리고 해당 요청이 문화적·상황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도(R, ranking of imposition)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화자는 다섯 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1) 직접적이고 완화 없는 명백한 발

21) 조은혜는 politeness를 '공손성'으로 impoliteness를 '불손성'으로 번역한다.

22) P. Brown and S. C.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화(bald on record), (2) 친밀성과 연대를 강조하는 적극적 정중 전략(positive politeness), (3) 부담을 완화하는 소극적 정중 전략(negative politeness), (4) 간접적 암시를 사용하는 암시적 발화(off record) 전략, (5) 체면 위협 행위(FTA)를 아예 수행하지 않는 전략.

이러한 정중 이론은 화자와 청자가 위계질서 안에서 체면을 상호 존중하는 담화 상황, 특히 왕과 신하 사이의 일반적인 대화 상황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분석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예언자가 왕을 책망하거나 심판을 선포하는 담화 장면에서는, 체면 보호나 완화 전략이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체면 침해가 노골적으로 수행된다. 이와 같은 담화 양상은 정중 전략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고, 무례 전략에 대한 이론적 틀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3.2. 무례 이론

컬페퍼(J. Culpeper)는 브라운과 레빈슨의 정중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체면 위협을 완화하는 전략이 아니라 체면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담화 전략을 분석하는 무례(impoliteness) 이론의 틀을 제시했다.[23] 브라운과 레빈슨이 체면 위협을 완화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면, 컬페퍼는 의도적으로 상대의 체면을 공격하여 사회적 불화를 조성하는 전략을 체계화했다. 무례는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부정적 감정이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

컬페퍼는 다섯 가지 무례 전략을 제시한다. (1) 명백한 무례 발화(bald on record impoliteness)는 체면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배려 없이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무례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2) 적극적 무례(positive impoliteness)는 상대의 적극적 체면 욕구, 즉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공격하는 전략으로, 상대를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무관심을 표하거나,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거나, 욕설을 사용하거나, 경멸적 호칭을 사용하는 전략이 나타난다. (3) 소극적 무례(negative impoliteness)는 상대의 소극적 체면 욕구, 즉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은 욕구를 공격하는 전략으로, 위협하거나, 조롱하거나,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상대의 빚을 상기시킨다. (4) 풍자적 정중(sarcasm/mock politeness)은 겉으로는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상황상 명백히 거짓임이 드러나, 표면적 정중함을 통해 오히려 무례를 수행하는 전략이다. (5) 정중 표현 보류(withhold politeness)는 정중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정

23) J. Culpeper, “Towards an Anatomy of Im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25 (1996), 349-367.

중 표현을 생략함으로써 무례를 수행한다.

3.3. 성서 히브리어의 정중 전략과 무례 전략

구약성서 내의 정중 어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밀러(C. L. Miller)와 레벨(E. J. Revell)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24] 이들은 정중 어법(politeness)보다 공손 표현(deferential language)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데, 이는 그들의 연구가 사회적 지위가 낮은 화자가 높은 지위의 청자에게 사용하는 공손한 언어 표현 분석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적절한 선택이다.[25]

3.3.1. 호칭어(terms of address)와 공손 표현(deferential language)

히브리어에서 호칭어는 대화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과 친밀감(social intimacy)을 표시해 준다.[26] 사회적 위계의 차이를 표지하는 호칭어들은 다수 존재한다. 본고에서 논의할 본문에는 '나의 주'(אֲדֹנִי), '왕/임금님'(הַמֶּלֶךְ), '나의 주 왕/임금님'(אֲדֹנִי הַמֶּלֶךְ) 등이 대표적인 호칭어다. 이러한 호칭어들은 대부분 지위가 낮은 화자가 지위가 높은 청자를 호명할 때 사용되며, 상위자가 하위자를 호명할 때 사용되는 호칭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27] 이처럼 사회적 위계의 불평등을 표지하는 호칭어들은 화자와 청자의 위상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공손 어법을 수행한다.

공손 표현은 기능적으로 화자-중심 공손과 청자-중심 공손으로 구별된다.[28] 이 가운데 호칭어를 통해 실현되는 공손 표현은 화자-중심 공손에 해

---

24) C. L. Miller,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A Linguistic Analysis* (Atlanta: Scholars, 1996), 269-281;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Expressive Usage in Biblical Narrative* (Kampen: Kok Pharos Publishing House, 1996), 267-294.

25) 이러한 선구적 연구는 이후 에스텔(B. D. Estelle)과 브리지(E. J. Bridge)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계승·발전되었다. B. D. Estelle, "Know before Whom You Stand: The Language of Deference in Some Ancient Aramaic and Hebrew Documents", Ph.D.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001); E. J. Bridge, "The Use of Slave Terms in Deference and in Relation to God in the Hebrew Bible" Ph.D. Dissertation (Macquarie University, 2010); 에스텔과 브리지의 연구에 대한 개략적인 요약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김성언, "정중 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7 (2015), 92-93.

26) C. L. Miller,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269-270.

27) Ibid., 270. 밀러(C. L. Miller)는 상위자가 하위자를 호명할 때 사용되는 호칭어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에스더기에서 왕이 "에스더 왕후여"라고 호명하는 표현은(에 5:3, 6; 7:2), 상위자가 하위자를 부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접적·비격식적 호명과 달리, 청자의 제도적 지위와 체면을 존중하는 정중한 언어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성언, "정중 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7 (2015), 84-106.

28) C. L. Miller,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269-270; 조은혜는 화자-중심 공손과 청자-중심 공손이라는 개념적 구분을 각각 청자를 높이는 존칭어와 화자를

당한다.[29] 이때 화자는 청자를 '나의 주'로 지칭함으로써 청자의 상위 사회적 관계를 표지하는 동시에, 자신을 1인칭 소유대명사로 지시함으로써 발화 상황의 일반적인 지시체계를 유지한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종'과 같이 화자를 청자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을 청자-중심 공손 표현이라고 한다.[30] 이때 화자는 청자를 2인칭 소유대명사로 지시함으로써 발화 상황의 일반적인 지시체계(deixis)를 유지하는 동시에, 청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열등한 위치에 있음을 사회적으로 표지한다. 두 경우 모두 권위자에게 간청이나 요청과 같이 청자의 허락을 유도해야 하는 담화 상황에서, 발화로 인한 청자의 체면 위협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정중 전략으로 기능한다.

3.3.2. 3인칭 명사 지시를 통한 공손 전략

레벨은 공손 전략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를 비교적 자세하게 논의한다.[31]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상위자일 경우에도 1인칭과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은 흔하다. 그러나 화자는 자신의 발화가 상위 청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을 때, 곧 간청이나 부탁처럼 청자의 행동 자유를 제한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공손한 자기 비하(deferential self-effacement)를 수행하기 위해 청자를 3인칭으로 거리 두어 지시하는 표현을 사용한다.[32] 앞에서 설명했던 '나의 주'나 '당신의 종'과 같은 3인칭 명사를 통한 지시 표현 역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거리감을 표지하는 담화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레벨에 따르면, 이러한 표현 방식은 화자와 청자를 하나의 상호작용적 쌍(dyad)으로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양자 사이에 거리감을 형성한다.[33] 이러한 거리감을 표현하는 방식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가 상위 청자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그 가능성을 우려할 때 선택되며, 이를 통해 공손함(deference)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동시에 이러한 거리 두기는 화자가 자신을 청자와 동일한 사회적 수준에 놓일 수 없는, 보다 겸손한 위치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담화적 장치로 작동한다.[34]

낮추는 겸양어로 재명명함으로써, 공손 표현의 방향성과 기능을 보다 직관적으로 제시한다. 조은혜, "구약성서의 공손어법과 한국어 번역 연구", 57-67.

29) C. L. Miller,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272.

30) Ibid., 271-272.

31)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265-322.

32) Ibid., 285-286.

33) Ibid., 56.

34)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거리감을 표지하는 방식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정중 전략의

밀러 또한 상대방을 2인칭으로 직접 호명하지 않고 3인칭 명사 지시로 지칭하는 방식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거리감을 확대하는 담화 전략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 밀러에 따르면, '나의 주'와 같이 1인칭 대명사가 포함된 표현보다 '왕/임금님'처럼 청자를 전적으로 3인칭으로 지칭하는 명사 표현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더 큰 사회적 거리감을 표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리감의 증가 곧 더 높은 수준의 공손함(deference)을 표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35] 이처럼 3인칭 명사를 통한 청자 지시는 단순한 지칭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화자가 청자에게 강화된 공손함을 표현하기 위해 거리감을 구조화하는 담화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3인칭 명사를 통한 청자 지시 방식은 청자의 사회적 지위와 화자–청자 간 위계를 명시적으로 표지함으로써 발화가 지니는 체면 위협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며, 이는 브라운과 레빈슨이 말한 소극적 정중 전략의 전형적 실현으로 성서 히브리어에서 자주 관찰된다.

3.3.3. 정중 표현의 부재

화자가 청자를 2인칭으로 직접 지칭하는 경우, 즉 거리 두기를 통한 정중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언자가 왕에게 나아가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 담화에서는 "왕께서는"/"임금님은"과 같은 직함이 의도적으로 생략되고, 대신 2인칭 대명사만으로 지시된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누락이나 중립적 표현이 아니라, 왕의 긍정적 체면 —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이 승인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 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컬페퍼의 이론에 따르면, 상대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호칭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적극적 무례 전략(positive impoliteness)[36]에 해당한다. 이는 정중 전략의 결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중 전략과 대립되는 언어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밀러는 예언자의 정중 표현 부재가 사회적 위계질서를 반영하는 발화가 아니라, 서술자가 부여한 신적 권위를 수행하는 '이데올로기적' 담화의 표현이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어 왔다. R. T. Lakoff, "The Logic of Politeness", Proceedings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9 (1973) 292-305.

35) C. L. Miller,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273-274.

36) 상대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호칭을 주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무례 전략으로 적극적 정중 전략의 반대 개념이다.

> 공손 표현은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서사 텍스트 안에서는 인물들 사이의 추정되는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서술자의 이데올로기가 공손 표현의 사용을 궁극적으로 통제한다. 그 결과, 예컨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때나, 혹은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말할 때 공손 표현은 사용되지 않는다.[37]

레벨은 이러한 담화를 보다 구체적인 단위에서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왕-예언자 대화에서 지위라는 단일 변수가 아니라, 구체적 담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중/무례 전략이 선택되고 실행된다고 말한다. 예언자는 단순한 권력 위계 척도에 따라 서열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언자는 어떤 면에서는 왕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왕보다 덜 강력한 위치에 놓여 있다.[38] 정중(공손) 발화의 사용은 화자와 청자의 지위(status)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지위 이외의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조건화되거나 좌우된다.[39]

반면 예언자 담화는 본질적으로 체면 보호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화자와 청자 사이의 권위를 조정하거나 협상하는 장르가 아니다. 예언자의 발화는 책임을 특정 인물에게 귀속시키고 하나님의 판단을 선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 권위는 타협이나 완화를 전제하지 않는다.[40] 따라서 예언자 담화에서 공손 표현의 부재는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예언자 담화가 요구하는 구조적 규범에 따른 필연적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별히 요청이나 간청 담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손 표현을 책망·심판 담화 번역 시 원문에 없음에도 추가한다면, 담화의 본래 성격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

37) C. L. Miller,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280. 따라서 서술자의 관점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번역은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0:25와 11:8에서 『개역개정』이 사용한 '왕'이나 『새한글』의 '폐하'와 같은 표현은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요소로서, 번역 과정에서 배제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38)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43.

39) Ibid., 44.

40) 김유기의 논문이 증명하듯이, 자기-공손 표현이 사무엘서에서 75회 등장하여 무려 전체 구약성서의 36%를 차지하지만 다윗과 예언자 사이의 담화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Y. Kim, "Deferential Self-Reference in the Book of Samuel", *VT* 65 (2015), 588-605. 예외적으로, 왕상 1:24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룰 예정이다.

4. 왕과 예언자의 대화 번역 고찰

본 장에서는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왕과 예언자의 대화 장면을 중심으로, 동일한 인물 관계 안에서도 담화 목적에 따라 정중 전략과 무례 전략이 어떻게 상이하게 선택·전환되는지를 번역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통해 예언자 담화가 요청·청원 담화와 심판 선언 담화라는 서로 다른 담화 유형 속에서 어떠한 언어 전략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4.1. 다윗-나단 담화

본 장에서는 다윗과 나단의 담화를 성경 본문의 서사 순서에 따라 분석하지 않고, 담화 유형의 대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분석 순서를 재구성한다. 먼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요청하는 요청·청원 담화를 살핀 뒤, 이어서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심판 선언 담화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순서를 택한 이유는 두 담화 장면에서 사용되는 언어 전략이 뚜렷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왕위를 요청하는 장면에서 나단은 왕과 신하 사이의 일반적인 정치·궁정 담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중 전략을 사용하며, 다윗의 권위와 체면을 존중하는 표현을 유지한다. 반면, 밧세바 사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에서는 이러한 정중 전략이 거의 사라지고, 왕의 체면을 의도적으로 위협하는 무례 전략이 전면적으로 사용된다.

4.1.1. 열왕기상 1:22-27, 33

열왕기상 1:22–27[41]은 나단이 다윗에게 솔로몬의 왕위 계승 문제를 보고하며, 밧세바와 협력해 아도니야의 즉위 시도를 알리고 왕의 공식 결정을 촉구하는 궁정 보고·청원 담화 장면이다. 이 단락은 예언자가 왕의 체면과 권위를 존중하는 정중 전략을 사용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전형적인 왕–신하 담화 유형을 보여준다.

41) 『새번역』과 『새한글』은 28절을 다윗이 나단에게 대답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2인칭 복수에게 명령한 히브리어 원문을 고려하면 이것은 다윗이 신하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표 1> 열왕기상 1:24 (나단 → 다윗)

성경	본문	화계 유형
히브리어 (BHS)	וַיֹּאמֶר נָתָן אֲדֹנִי הַמֶּלֶךְ אַתָּה אָמַרְתָּ אֲדֹנִיָּהוּ יִמְלֹךְ אַחֲרָי וְהוּא יֵשֵׁב עַל־כִּסְאִי׃	
『개역개정』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야기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하십시오체
『새번역』	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야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십시오체
『새한글』	나단이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것이로. 그가 내 임금자리에 앉을 것이오.’라고요?	하십시오체
개인사역	나단이 말하였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도니야가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그가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십시오체

나단은 다윗의 심기(체면)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바로 앞 절(왕상 1:23)에서 나단이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행위는 왕의 권위와 지위를 최대한 인정하고 존중하는 적극적 정중 전략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절하기는 다윗이 왕으로서 존중받고 높임 받고자 하는 적극적 체면 욕구를 지지하며, 나단은 자신의 요청과 질문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비언어적으로 철저한 복종과 존중의 태도를 표현한다.

이어 나단은 다윗을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이라고 호칭하며 말을 시작한다. 이 표현은 위에서 분석했듯이, 신하가 왕에게 요청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적극적 정중 전략으로, 왕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복종, 그리고 화자와 청자 사이의 위계질서를 분명히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호칭을 통해 나단은 다윗의 적극적 체면, 곧 왕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를 지지한다.

이와 같은 적극적 정중 전략들을 충분히 사용한 뒤에야 나단은 비로소

다윗의 뜻을 조심스럽게 묻는 질문을 제시한다. 왕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묻는 행위는 자칫 왕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지니기 때문에, 나단은 적극적 정중 전략을 통해 왕을 충분히 높인 후, 그제서야 질문한다. 이처럼 질문을 곧바로 제시하지 않고 지연시키며 간접적으로 도입하는 담화 구조 자체가 소극적 정중 전략에 해당한다. 이는 왕에게 심리적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발화의 강제성을 완화함으로써, 왕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부담 최소화 전략이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의 "내 주 왕"과 『새한글』의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은 모두 적극적 정중 전략을 구현한 번역이다. 이러한 호칭은 왕의 높은 지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왕으로서 존중받고자 하는 적극적 체면 욕구를 지지한다. 특히 소유격("내/저의")을 사용함으로써 신하의 복종과 충성을 표현하며, 화자와 청자 사이의 위계질서를 분명히 드러낸다. 『새한글』의 "저의"는 『개역개정』의 "내"보다 더 낮추는 표현으로, 현대 한국어 존대 체계에서 청자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지닌다. 또한 『새한글』의 "-이신 임금님" 역시 존대의 정도를 강화하여, 적극적 정중 전략을 보다 명시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새한글』에서 히브리어 2인칭 대명사를 "임금님께서"로 번역한 것은 기능적 등가성(functional equivalence)에 근거한다.[42] 한국어에서는 높임의 대상에게 2인칭 대명사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직책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전형적인 존대 방식이기 때문에, "임금님께서"는 왕-신하 담화 상황에서 요구되는 존대 기능을 구현한 번역이다. 이는 상대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적극적 정중 전략으로, 히브리어 원문의 의사소통 기능을 한국어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표 2> 열왕기상 1:33 (다윗 → 사독, 나단, 브나야)

성경	본 문	화계 유형
히브리어 (BHS)	וַיֹּאמֶר הַמֶּלֶךְ לָהֶם קְחוּ עִמָּכֶם אֶת־עַבְדֵי אֲדֹנֵיכֶם וְהִרְכַּבְתֶּם אֶת־שְׁלֹמֹה בְנִי עַל־הַפִּרְדָּה אֲשֶׁר־לִי וְהוֹרַדְתֶּם אֹתוֹ אֶל־גִּחוֹן׃	

42) 기능적 등가성(functional equivalence)은 원문의 의사소통 기능을 대상 언어에서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번역 접근법이다. 히브리어 2인칭 대명사는 중립적이지만, 한국어에서는 높임의 대상에게 "당신"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금님께서"와 같은 직책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전형적인 존대 방식이다. 따라서 왕-신하 담화 상황에서 2인칭 대명사를 "임금님께서"로 번역하는 것은, 원문이 의도한 존대의 의사소통 기능을 한국어 맥락에서 구현한 기능적 등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기능적 등가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32-133 참조.

성경	본 문	화계 유형
『개역개정』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하라체
『새번역』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하십시오체
『새한글』	임금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 주인의 신하들을 함께 데리고 가세요. 나의 아들 솔로몬을 내가 가진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내려가세요."	해요체
개인사역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주인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시오.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가진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내려가시오."	하오체

열왕기상 1:33에서 다윗의 명령을 받는 청자는 단순한 하급 신하가 아니라,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을 포함한 왕실 핵심 인사들이다. 이들은 행정적 수행자일 뿐 아니라 종교적·도덕적 권위를 지닌 인물들로서,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청자 정체성을 고려할 때, 『개역개정』의 "너희"는 화자를 청자보다 일방적으로 상위에 두는 강한 위계적 호칭으로서, 청자들의 상징적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 『새한글』의 "그대들"은 상대를 지나치게 낮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거리감을 유지하는 표현으로, 제사장과 예언자라는 청자의 복합적 지위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는 "너희"보다는 "그대들"이 청자들의 사회적·종교적 위상을 고려한 보다 적합한 호칭이라 할 수 있다.

이 발화는 왕이 제사장과 예언자에게 왕위 계승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공식 명령 담화로, 책망이나 심판과 같은 체면 파괴적 발화가 아니라 행정적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요구되는 화계는 권위의 명확한 표지와 청자에 대한 존중이 동시에 구현되는 중립적·공식적 화계이다. "그대들"이라는 중립적·공식적 호칭과 조응하면서, 권위와 존중을 동시에 구현하는 화계는 해요체보다는 하오체인 "데리고 가시오"와 "내려가시오"에 해당한다.

4.1.2. 사무엘하 12:1-15

사무엘하 12:1-15는 나단이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그 책임을 왕 개인에게 귀속시키며 여호와의 판단을 공표하는 심판 선언 담화로서, 체면 보호를 위한 정중 전략이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무례 전략이 전면화되는 장면이다.

<표 3> 사무엘하 12:7 (나단 → 다윗)

성경	본 문	화계 유형
히브리어 (BHS)	וַיֹּאמֶר נָתָן אֶל־דָּוִד אַתָּה הָאִישׁ	
『개역개정』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라체
『새번역』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십시오체
『새한글』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십시오체
개인사역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	하오체

나단의 “אַתָּה הָאִישׁ(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체면이 극도로 중요한 왕 면전에서 어떠한 완화 장치도 없이 직접적으로 규탄을 수행하는 명백한 무례 발화에 해당한다. 이 발화는 정중함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채 다윗의 죄를 즉각적으로 폭로하고 심판을 귀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는 정중어법의 실패가 아니라, 예언자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수행된 전략적 무례 담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어 성경 번역본들은 이 장면에서 2인칭 대명사 אַתָּה를 서로 다르게 처리한다. 『개역개정』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로 직접적인 2인칭 대명사 표현을 유지하는 반면, 『새번역』과 『새한글』(“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은 2인칭 대신 3인칭 표현인 “임금님”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번역하고 있다.[43] 2인칭 대명사 대신 “임금님”이라는 3인칭화 명사를 사용함으로

43) 이와 비슷한 경우가 모세와 파라오의 대화 장면에서도 등장한다. 파라오와 모세의 대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왕과 예언자의 만남은 아니다. 하지만 파라오와 모세의 만남과 이스라엘의 왕과 예언자의 만남이 구조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이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면에서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비슷하게 출 10:25; 11:8 등에 있는 『개역개정』의 ‘왕’과 『새한글』 ‘폐하’는 본문에 없는 단어를 추가하여 번역했다. 10:29에 나와 있는 2인칭 대명사(you)를 『개역개정』은 ‘당신’으로 옮겼지만 『새한글』은 다시 ‘폐하’로 번역하고 있다. 이처럼 『새한글』에

써 상대방의 권위를 높이고 공손함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존대 전략이다. 이러한 번역 경향을 종합해 볼 때,『개역개정』은 히브리어 본문의 직접적인 2인칭 규탄 전략을 충실히 반영한 반면,『새번역』과『새한글』은 2인칭 대명사를 존대 표현으로 대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무례한 담화 효과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새번역』과『새한글』의 이러한 완화된 번역 방식은 나단 담화의 담화 상황과 심각한 불일치를 보인다. 나단의 발화는 명백한 무례 발화로서 왕의 체면을 의도적으로 위협하고 그의 죄를 직접적으로 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담화 행위에서 동시에 "임금님"이라는 직함 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담화 전략 차원에서 일관성을 결여한다. 무례 발화의 핵심은 완화 장치 없이 상대방을 직접 대면시키는 것인데, "임금님"이라는 직함 명사는 오히려 그 직접성을 약화시키고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존대 표현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금님"은 히브리어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존대가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화 상황에서라면 이러한 직함 명사가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책망과 심판을 수행하는 이 특수한 담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번역 선택이다. 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언어 전략은 상대의 체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나단의 발화는 그 체면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두 전략을 동일한 발화 안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은 담화 목적과 어긋난다. 조은혜의 이론적 틀로 평가하면, 이러한 화계 선택은 담화 내에서 이미 발생한 힘의 추이 변화 — 나단이 심판 선포자로, 다윗이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권력 이동 — 를 화계 변동으로 표지하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다.[44]

따라서『개역개정』의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비완화적 2인칭 규탄을 유지한 번역이 담화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 이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의 직접적인 2인칭 대명사를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나단 발화의 무례성과 직접성을 정확히 전달한다. 완화 장치 없는 직접적 규탄이라는 담화 전략을 충실히 구현하여, 예언자가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권위를 언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새한글』의 원칙에 따라 현대적인 어투로 번역하더라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도 이상의 존대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와 같은 비완화적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는 많은 경우에 파라오에 해당하는 2인칭 대명사를 '폐하'로 번역하는 것을 매우 선호한다.

44) 조은혜, "구약성서의 공손어법과 한국어 번역 연구", 119-121.

<표 4> 사무엘하 12:13 (다윗 ↔ 나단)

성경	본 문	화계 유형
히브리어 (BHS)	וַיֹּאמֶר דָּוִד אֶל־נָתָן חָטָאתִי לַיהוָה ס וַיֹּאמֶר נָתָן אֶל־דָּוִד גַּם־יְהוָה הֶעֱבִיר חַטָּאתְךָ לֹא תָמוּת׃	
『개역개정』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라체
『새번역』	그 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십시오체 하십시오체
『새한글』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도 임금님의 죄를 치워 주셨습니다.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십시오체 하십시오체
개인사역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였다. “제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이오”	하십시오체 하오체

사무엘하 12:13에서 다윗은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חָטָאתִי לַיהוָה)라고 고백한다. 이 발화는 왕으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1인칭 단수 주어와 죄의 책임을 명시하는 동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직접 인정하는 자기 낮춤 담화에 해당한다. 이는 체면을 방어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는 체면 포기 전략이다. 이러한 담화 기능을 고려할 때, 이 장면에서 요구되는 화계는 비완화적 규탄이나 위계적 명령 화계가 아니라, 자기 책임을 낮은 위치에서 인정하는 자기 낮춤 화계이다. 이 점에서 『새번역』과 『새한글』의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와 같이 하십시오체 계열의 종결형은 고백 행위의 겸손함과 자기 낮춤 효과를 잘 구현한다. 반면 『개역개정』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는 상대적으로 서술적이고 위계적 어감을 지녀, 고백 담화의 자기 낮춤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무엘하 12:13상반에서는 『새번역』과 『새한

글』의 화계가 다윗의 고백 담화 기능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나단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소.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오"(גַּם־יְהוָה֙ הֶעֱבִ֣יר חַטָּאתְךָ֔ לֹ֥א תָמֽוּת)라는 선언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형벌 완화를 선포하는 회복 담화에 해당한다. 이 발화에서 나단은 왕을 높이거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한 존대 담화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과 은혜를 권위 있게 전달하는 선언 담화를 수행한다. 따라서 "임금님"과 같은 3인칭 직함 명사를 삽입하여 다윗의 왕적 위상을 강조하는 번역은, 나단이 수행하는 신적 판결의 중재자라는 담화 기능과 어울리지 않는다. 나단의 발화는 다윗을 '왕'으로 존대하는 언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예언자적 선언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새번역』과 『새한글』의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는 "죄를 치워 주셨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담화의 성격을 존대 담화로 전환함으로써, 예언자적 선언의 권위성을 약화시킨다. 반면 『개역개정』의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는 직함을 배제하고 2인칭 대명사를 반영함으로써, 나단이 수행하는 선언 담화의 권위적 성격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담화 기능을 고려할 때, 사무엘하 12:13하반의 번역은 존대화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보다는,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이오"와 같은 중립적·권위적 화계가 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2. 사울-사무엘 대화

본 절에서는 사울과 사무엘 사이의 담화를 분석한다. 이 대화는 왕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체면을 방어하려는 담화에서 출발하여, 예언자가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왕권 박탈을 선언하는 담화로 전개된다. 이를 통해 왕–예언자 담화에서 정중 전략이 어떻게 붕괴되고, 심판 국면에서 화계와 권위 관계가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사무엘상 15:13 (사울 → 사무엘)

성경	본 문	화계 유형
히브리어 (BHS)	וַיָּבֹ֣א שְׁמוּאֵ֣ל אֶל־שָׁא֔וּל וַיֹּ֥אמֶר ל֖וֹ שָׁא֑וּל בָּר֣וּךְ אַתָּ֔ה לַיהוָ֖ה הֲקִימֹ֥תִי אֶת־דְּבַ֖ר יְהוָֽה׃	

성경	본 문	화계 유형
『개역개정』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하소서체
『새번역』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하십시오체
『새한글』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다. 그에게 사울이 말했다. “어르신은 여호와께 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십시오체
개인사역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다. 그러자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십시오체

『개역개정』은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2인칭 대명사를 그대로 “당신”으로 옮긴 반면, 『새한글』은 본문에 없는 명사 호칭인 “어르신”을 추가하여 번역한다. “어르신”은 한국어 화용 규범에 부합하는 존대 전략이지만, 원문에는 명시되지 않은 호칭을 삽입함으로써 담화의 초점을 대인관계적 존중 표현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반면 이 장면에서 사울의 발화는 자신의 불완전한 순종을 정당화하려는 방어적 담화로, 핵심은 상대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자기 행위의 합리화에 있다. 따라서 2인칭 대명사를 그대로 옮긴 『개역개정』보다, 차라리 호칭 자체를 생략하여 발화의 논점만 전달하는 번역이 원문의 담화 기능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무엘상 15:13에서 사울의 발화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체면을 방어하려는 담화로, 두 번역본은 이를 서로 다른 화계로 구현한다. 『개역개정』은 “받으소서 / 행하였나이다”와 같은 하소서체를 사용하여 사무엘을 극존대로 높이는 의례적·종교적 화계를 구성함으로써 왕–예언자 담화의 위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전통적 경전 문체의 품격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화계는 현대 독자에게 다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지닌다. 반면 『새한글』은 “복받으시기 바랍니다 / 했습니다”라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공손하면서도 보다 중립적이고 현대적인 공식 화계로 같은 담화를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존대 표현을 강화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통 경전 문체가 지니는 의례성과 무게감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두 번역 모두 기능적으로는 사울의 자기 정당화와 체면 방어를 수행하지만, 『개역개정』은 극존대 종교 담화의 엄숙성을, 『새한글』은 현대적·공식적 소통의 가독성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6> 사무엘상 15:26 (사무엘 → 사울)

성경	본 문	화계 유형
히브리어 (BHS)	וַיֹּאמֶר שְׁמוּאֵל אֶל־שָׁאוּל לֹא אָשׁוּב עִמָּךְ כִּי מָאַסְתָּ אֶת־דְּבַר יְהוָה וַיִּמְאָסְךָ יְהוָה מִהְיוֹת מֶלֶךְ עַל־יִשְׂרָאֵל׃	
『개역개정』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소서체
『새번역』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십시오체
『새한글』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임금님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신 까닭에 여호와도 임금님을 버리셔서 이스라엘 위에 임금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하십시오체 해요체
개인사역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하오체

사무엘상 15:26의 『새한글』 번역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 하셨거든요”와 같이 하십시오체와 해요체가 혼합된 화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의 담화 기능은 사울의 요청을 거절하고 여호와의 판단에 근거하여 왕권 박탈을 선언하는 심판 담화이므로, 설명적·완화적 성격을 지닌 해요체와 공손한 하십시오체의 결합은 이러한 권위적 선언과 조화롭지 못

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개역개정』의 “왕”과『새한글』의 “임금님”이라는 호칭은 이미 왕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담화 목적과 긴장을 야기하며, 히브리어 본문에도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 번역은 심판 선언 담화의 권위성과 담화 초점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며, 과도한 존대와 완화 전략으로 인해 왕권 박탈이라는 담화 목적의 언어적 효과가 일정 부분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개역개정』의 호칭 사용이 담화 전개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왕”을 유지하는 반면,『새한글』은 처음에는 “당신”을 사용하다가 심판 담화의 절정 국면에서 존대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담화 기능과 화용 전략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낸다는 점이다.『개역개정』은 사무엘상 15:16부터 심판 선언이 완결되는 26절에 이르기까지 사울을 “왕”으로 지칭한다. 반면『새한글』은 앞 장면인 사무엘상 15:16-18에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2인칭 대명사인 “당신”을 사용하다가, 담화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여호와의 심판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23절 이후부터는 오히려 “임금님”이라는 존대 호칭으로 전환한다. 이는 담화가 점진적으로 긴장되고 최종적인 왕권 박탈 선언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점에서, 언어적으로는 오히려 상대의 지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역설적인 현상이다. 그 결과 심판 담화가 지녀야 할 엄격함과 단정성이 존대 표현에 의해 완화되며, 왕권 박탈이라는 담화 목적의 언어적 효과가 약화되는 인상을 준다. 오히려 담화 초반에는 “임금님”과 같은 존대 호칭을 사용하거나 호칭어를 생략하다가, 갈등이 증폭되고 심판이 선포되는 시점에서 “당신”과 같은 비존대적·대면적 호칭으로 전환했다면, 심판의 엄중함과 단절의 효과가 언어적으로 더 선명하게 전달되는 번역이 되었을 것이다.

5. 나가는 말

본 연구는『새한글』의 존대법 운용을 왕–예언자 담화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 정중(politeness)과 무례(impoliteness)가 단순한 예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담화 속 권위 재배열을 표지하는 핵심 언어 자원임을 논증하였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은 최고 사회적 지위를 점하지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로서 사회적 위계를 초과하는 신학적 권위를 수행한다. 이 두 권위의 긴장은 왕–예언자 담화에

서 정중 전략과 무례 전략의 선택을 조건화하며, 번역은 바로 이 지점을 언어적으로 가시화해야 한다.

분석 결과, 『새한글』은 전반적으로 한국어 화용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화계를 도입하고 존대법의 선택 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취를 보인다. 그러나 책망·심판 담화와 같이 체면 보호가 아니라 체면 침해가 담화의 목적이 되는 국면에서도, 2인칭 대명사를 직함 명사("임금님")로 대체하거나 존대 화계를 상향 유지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선택은 원문의 비완화적 대면성과 권위 전환의 순간성을 약화시키며, 담화 내부에서 이미 발생한 힘의 추이를 화계 변동으로 표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 2인칭 처리와 화계 선택을 담화 유형 중심으로 재정렬할 것을 제안한다. 궁정 보고·요청 담화에서는 명사 호칭과 상향 화계가 기능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예언자의 책망·심판 담화에서는 직접적 2인칭 지시와 존대법의 제한이 원문의 담화 기능을 가장 충실히 재현한다. 다시 말해, 번역의 목표는 일관된 공손함의 유지가 아니라, 담화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적 불일관성 — 즉 상황에 따른 화계 변동 — 의 구현이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존대법을 '공손함의 표시'로 환원하는 관점을 넘어, 성서 담화에서 존대법과 무례 전략이 권위 수행의 방식임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이는 성경 번역이 문체적 선택을 넘어 신학적 의미 생성의 장치임을 재확인하게 한다. 『새한글』의 성취와 한계를 동시에 고려할 때, 향후 번역 논의는 존대법의 미시적 선택을 담화의 순서성과 기능에 결부시켜 평가하는 방향으로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번역 원칙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왕에게 요청하거나 보고하는 궁정 담화에서는 한국어 존대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위계와 체면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2인칭 대명사를 직함 명사("임금님께서")로 대체하고 하십시오체 화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능적 등가 번역의 요건을 충족한다. 둘째, 예언자가 왕을 책망하거나 심판을 선언하는 담화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존대 표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도 존대 수위를 낮추는 번역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 원칙은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실현된다. (1)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직함 명사("임금님")를 삽입하지 않으며, 2인칭 대명사는 "당신"으로 직접 표현한다. (2) 화계는 하오체 수준을 상한으로 하여, 하십시오체로의 상향 이동을 억제한다. 하오체는 상대를 일정 정도 예우하되 화자의 권위와 우위를 유지하는 화계로서, 예언자가 왕의 지위를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담화 상황

에 적합하다. 예컨대 사무엘하 12:7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 사무엘상 15:26의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와 같은 번역이 이 원칙의 구체적 실현에 해당한다.

<주제어>(Keywords)
정중 어법, 무례 전략, 높임법(존대법), 왕-예언자 담화, 화계 변동.
Politeness, Impoliteness, Honorifics, King-Prophet Discourse, Speech-Level Shifts.

(투고 일자: 2026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6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26년 4월 13일)

<참고문헌>(References)

김성언, “정중 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7 (2015), 84-106.

민현식, “『새한글성경』 간추린 국어 해설”, 대한성서공회 편집, 『새한글성경 간추린 번역 해설집』 (2025), 189-222.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ehan&wr_id=31 (2026.01.31.).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353-384.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 (2014), 83-109.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97-122.

조은혜, “구약성서의 공손어법과 한국어 번역 연구: 왕과 예언자의 대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25.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27-148.

Bridge, E. J., “The Use of Slave Terms in Deference and in Relation to God in the Hebrew Bible”, Ph.D. Dissertation, Macquarie University, 2010.

Brown, P. and Levinson, S. C.,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Culpeper, J., “Towards an Anatomy of Im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25 (1996), 349-367.

Estelle, B. D., “Know Before Whom You Stand: The Language of Deference in Some Ancient Aramaic And Hebrew Documents”, Ph.D.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001.

Kim, Y., “Deferential Self-Reference in the Book of Samuel”, *VT* 65 (2015), 588-605.

Lakoff, R. T., “The Logic of Politeness,” *Proceedings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9 (1973), 292-305.

Miller, C. L.,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A Linguistic Analysis*, Atlanta: Scholars, 1996.

Revell, E. J.,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Expressive Usage in Biblical Narrative*, Kampen: Kok Pharos Publishing House, 1996.

<Abstract>

A Study on Politeness Strategies in the New Korean Translation: Focusing on Dialogues between Kings and Prophets

Sung-On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article examines the use of honorifics in the New Korean Translation (NKT), focusing on dialogues between kings and prophets, and offers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NKRV) and the New Korean Revised Standard Version (NKRSV). Although Biblical Hebrew lacks a grammaticalized honorific system comparable to that of Korean, it nevertheless encodes social hierarc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through terms of address, pronominal choice, and discourse strategies. In particular, royal–prophetic dialogues exhibit a clear pragmatic distinction between scenes of request or report and scenes of rebuke or judgment. While the former typically employ politeness strategies oriented toward face preservation, the latter characteristically utilize impoliteness strategies that deliberately threaten the addressee's face.

Drawing on politeness theory (Brown & Levinson) and impoliteness theory (Culpeper),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functional features of Biblical Hebrew discourse can and should be represented in Korean Bible translation.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treatment of second-person reference and to shifts in sentence-final speech-level markers, which function as key indicators of authority transfer and judgment declaration within the discourse. From this perspective, the NKT demonstrates a notable strength in its flexible deployment of modern Korean speech levels to reflect character relationships and situational contexts. At the same time, however, it reveals a significant limitation: by consistently retaining honorific titles and elevated speech levels even in rebuke and judgment contexts, it tends to attenuate the confrontational force and directness intrinsic to prophetic discourse.

By contrast, the NKRV preserves, in certain passages, direct second-person address and unmitigated expressions, thereby more faithfully conveying the authority and tension characteristic of prophetic judgment speech delivered

before kings. This article argues that honorifics in royal-prophetic discourse should not be applied uniformly as a fixed norm but rather adjusted strategically according to discourse type and theological function. In particular, it proposes that in contexts of rebuke and judgment, the restriction or suspension of honorifics may more accurately reflect the pragmatic and theological force of the biblical text.